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체육

# 경남체육

GYEONGNAM SPORTS

2019. 07 Vol. 27



경상남도체육회  
GYEONGSANGNAM-DO SPORTS COUNCIL

일상속

#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 스포츠7330 완성

하루운동 총량  
30분이상!



버스정거장에서  
집까지 걸기  
5분



회사에서 지하철역  
가볍게 걸기  
5분



사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10분



지하철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10분



버스정거장까지  
가볍게 걸기  
5분



START



## 기획특집

- 04 2023년 전국체전 유치 확정
- 06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성황리 마무리
- 10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합시상 '질서상 1위' 결실
- 12 경남체육 꿈나무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열정 발휘

## 인사이드 경남체육

- 14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행복한 축제의 장'
- 15 도민체전 운영개선 평가회
- 16 김해 4개 실업팀 합동 창단식
- 17 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운영
- 18 최우수클럽에 진주스포츠클럽, 신규 스포츠클럽에 합천군 선정
- 19 생활체육 광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스포츠7330 실천해요
- 20 경상남도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
- 21 경상남도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 선임
- 22 김오영 상임부회장, 하계 강화훈련 선수 격려

## 뉴스라인

- 23 대한체육회 소식
- 24 경상남도체육회 소식
- 26 시군체육회 소식
- 29 회원종목단체 소식

## 인터뷰

- 32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 스포츠칼럼

- 34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창업

## 경남체육회 직장운동부

- 36 경남체육회 핀수영팀

## 스포츠팀

- 38 김해 부경양돈농협 볼링팀

## 화제의 동호인 클럽

- 40 김해 장유여성자전거회

## 학교체육 운동부

- 42 진주 선명여고 배구팀

## 경남체육 유망주

- 44 창원 무학초 골프선수 이호송

## 스포츠클럽 탐방

- 46 진주스포츠클럽

## 명예기자단 취재 소식

- 48 창원기공, 무학기 축구대회 공동3위!
- 50 전국소년체전 씨름왕 이창범

## 포토갤러리

- 52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 60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64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건강플러스

- 70 여름철 폭염 대처요령



### Cover Story

좌측부터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축구경기(군부), 제48회 전국소년체전 리듬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김원령(삼계초6학년) 선수의 경기,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종합1위 차지한 그라운드골프 경기 장면

등록번호 창원, 사00006 발행인 김경수 회장 편집인 지현철 사무처장  
 발행처 경남체육회 기획총무부 발행일 2019년 7월 25일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운동장내 166호)  
 전화 055.260.5300 팩스 055.264.4164 홈페이지 www.gnsports.or.kr  
 디자인/인쇄 ㈜경남신문사

##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대한체육회 이사회서 '경남 김해시' 최종 선정  
55만 김해시민의 간절한 열망이 이뤄낸 쾌거





경상남도(주개최지 김해시)가 3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24차 이사회에서 2023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한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20일~21일 진행된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으로부터 경쟁도시 부산시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 유치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2023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전국체전으로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민이 하나 되는 화합체전,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체전으로 지역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55만 김해시민들의 염원이 유치 확정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김해시가 전국체전 주 개최 도시로 결정된 만큼 전 국민의 화합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며 국내대회 중 명성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이다. 17개 시·도 대항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으로 발돋움한 동력이자 뿌리이다.

한편, 경남이 2023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잇따라 개최하게 되며, 국내 5대 체전을 통해 경상남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58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성황리 마무리

거제시 일원에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려  
시범경기 포함 28개 종목, 역대 최대 1만794명 참가



4월 19일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4월 22일 오후 5시 거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도민체전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육상, 축구, 배드민턴 등 25개 정식종목과 바둑, 산악 시범경기 2개 종목 그리고 전시종목인 족구 등 모두 28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794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맘껏 펼쳤다.

### 시부 창원시 9연패, 군부 함안군 종합우승 탈환

이번 대회결과 종합우승은 창원시(시부)와 함안군(군부)이 각각 차지했다.

창원시는 1위 16개 종목, 2위 6개 종목, 3위 2개 종목, 총 197.5점을 획득해 통합 이후 9연패 위업을 달성했으며, 함안군은 1위 5개 종목, 2위 6개 종목, 3위 3개 종목, 총 136.5점을 획득해 지난해 거창군에 내어준 종합우승을 탈환했다. 2위는 김해시(시부)와 창녕군(군부), 3위는 거제시(시부)와 거창군(군부)이 차지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투철한 스포츠맨십과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정정당당히 경쟁해 타의 모범이 된 선수단에 주어지는 모범선수단상인 화합상은 하동군, 인정상은 밀양시, 장려상은 합천군, 모범상은 양산시, 감투상은 고성군, 질서상은 진주시가 받았으며, 전년 대비 성적이 향상된 선수단에게 주어지는 성취상은 거제시와 창녕군이 선정됐다.

원만한 경기진행으로 성공적인 체전에 기여한 회원종목단체에 주어지는 질서상 1위는 경남육상연맹, 2위는 경남유도회, 3위는 경남보디빌딩협회에게 돌아갔다. 개회식 입장상은 진주시가 받았다.



**대회신기록(17명), 4관왕(13명)·3관왕(48명)·2관왕(100명) 대거 쏟아져**

이번 대회에는 육상에서 2개, 수영에서 7개, 자전거에서 8개 총 17개의 대회신기록이 쏟아졌다. 육상 남고부 창던지기에서 창원 전병준(경남체고)은 60.47m를 던져 종전 기록을 4.04m 경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 남고부 자유형 200m의 사천 김주영(삼천포고)은 본인이 지난해 기록한 1분57초69보다 0.9초 빠른 1분56초79로 금빛 물살을 갈랐으며, 개인혼영 200m에서도 2분13초15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을 달성했다. 창원 김우겸(창원경륜공단)은 자전거 남자일반부 1,000m독주에서 1분5초47로 골인해 종전 기록을 2초37 앞당겼다.

또한 육상에서 8명, 수영에서 5명의 4관왕이 탄생했다. 육상 여고부 함안군의 김서윤(경남체고)은 트랙 400m, 400m계주, 400m허들, 1,600m계주에서 1위에 올랐다.





수영 여자일반부 창원시의 유예빈(창원시수영연맹)은 자유형50m·100m, 계영과 혼계영 400m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육상 7명·수영 8명·역도 33명 등 총 48명이 3관왕의 주인공이 됐으며, 2관왕을 차지한 선수는 총 100명이다.

18개 시·군선수단은 선의의 경쟁과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시·군 간 우의를 다지고 화합 제전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거제시의 대회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6만 시민을 비롯한 대회 지원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체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개회식에 앞서 김해 구지봉에서 채화돼 18개 시·군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만큼 활활 타 오르던 도민체전 성화도 폐회선언과 함께 소화됐다.

한편, 내년 열리는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창원시에서 개최된다.

# 2019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합시상 '질서상 1위' 결실

궁도·그라운드골프·보디빌딩 종합우승

택견·패러글라이딩 종합2위, 게이트볼·자전거 종합3위



경상남도 선수단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 2019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36개 종목에 1,355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선전했다.

경남은 대회 둘째 날인 26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개회식에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입장하며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에게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개최와 '스포츠7330'

캠페인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선수단을 격려하면서 "개회식에서 능률하고, 힘찬 모습으로 입장하는 경남선수단을 보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 모두가 자랑스럽고,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힘찬 박수를 보냈다"면서 "350만 도민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건



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경남선수단은 폐회식 종합시상식에서 질서상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질서상은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 선수단이 참가하는 개회식과 종목별로 출전하는 모든 대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어지는 상이기에 의미가 더 크다.

경남은 종목별 경기에서도 우수한 기량을 펼쳤다. 궁도·그라운드골프·보디빌딩 3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 택견·패러글라이딩 2개 종목에서 종합 2위, 게이트볼·자전거 종목은 종합 3위에 올랐다.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낸 궁도는 단체전 1위와 왕선옥(노

년부)과 이기봉(장년부)이 개인전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으며, 그라운드골프는 일반부에서 남·여 모두 1위, 어르신부에서 남자부 1위, 여자부 2위를 차지해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또 보디빌딩은 학생부 박다윗(70kg), 여자부 박한울(피지컬 오픈), 일반부 최성욱(30세 이상), 김한결(35세 이상), 배재석(45세 이상), 조현철(55세 이상)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밖에 육상에 출전한 박정목(60세 이상)은 400m계주에서 은메달에 그쳤지만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 경남체육 꿈나무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열정 펼쳤다

금33, 은21, 동40 총 94개 메달 수확

역도 여중부 강민정(김해 영운중)·이시원(마산삼진중) 3관왕

수영 남초부 강민성(거제 삼룡초)·여초부 윤서빈(양산 신양초) 대회신기록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경남은 34개 종목에 784명(초등 309명, 중등 475명)의 선수를 파견해 금메달 33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40개 등 총 94개 메달을 수확하며 경남체육의 미래를 밝게 했다.

특히 역도 여중부 강민정(김해 영운중)과 이시원(마산삼진중)은 각각 53kg급과 69kg급에 출전해 인상·용상·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영에서는 윤서빈(양산 신양초), 김시훈(진주 가람초), 정현영(거제고현중)이 2관왕에 올랐으며, 양궁은 정은비(진해여중)가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신기록도 2개 작성했다. 수영 남초부 강민성(거제 삼룡초)은 접영100m에서 1분7초54로 골인해 종전 대회신기록(1분8초07)보다 0.53초 빨랐으며, 여초부 윤서빈(양산 신양초)은 평영100m에서 종전 기록보다 0.39초 앞선 1분20초21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특히 경남은 기초종목 수영에서만 금8, 은1, 동3개 등 모두 12개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다.

종목별 최우수 선수도 3명 배출됐다. 야구소프트볼 초등부 장성민(창원 양덕초)을 비롯해 배구 여초부 이수인(통영 유영초), 양궁 여중부 정은비(진해여중)가 그 주인공이다.

단체전 종목에서는 야구 남초부 창원 양덕초가 결승에서 대구 옥산초를 2-1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고, 배구 여초부 통영 유영초는 광주 치평초에 2-1 역전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골프는 여초부 선발팀인 김도희(토월초)와 이효송(무학초)이 금메달을 수확했고, 펜싱 남중부 에베에서는 진주제일중이 울산 선발팀을

36-35로 이겨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 종목은 육상 멀리뛰기 이하안(거제중앙중)과 원반던지기 박서현(거창여중), 리듬체조 김원령(김해 삼계초), 체조 평행봉 진희채(진영대창초), 태권도 +68kg급 이승주(김해 봉명중), 롤러 3,000m 김승주(김해 칠산초)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 양궁 30m에서 김명규(동진중), 씨름 초등부 역사급 이상돈(진주 천전초)·중등부 용사급 최이건(통영 충무중)·장사급 이창범(마산중), 복싱 라이트급 한창우(진주중앙중)·웰터급 이형중(진해중), 자전거 정민혁(창원 경원중)이 금메달을 따냈다.

무엇보다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의 학생선수가 8개 종목에 32명이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선수 저변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21년까지 도내 학교 교기가 학교스포츠클럽, 지역형 스포츠클럽 등으로 전환될 시 소외되기 쉬운 비인기 종목과 기초종목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경기력 하락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선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행복한 축제의 장'

시·군 교육청 대표로 5,206명 참가... 30개 종목서 기량 겨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2019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시부와 군부로 나눠 교육청 대항 경기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 각 시·군 교육청 대표로 출전한 5,206명의 선수들이 3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시부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이 1위, 김해교육지원청이 2위, 진주교육지원청이 3위를 차지했다. 군부에서는 고성교육지원청이 1위, 함안교육지원청이 2위를 했으며, 3위는 거창교육지원청에 돌아갔다.

2019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에는 학교 운동부 육성학교 선수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스포츠 활동, 중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학교 체육활동을 통해 기량을 갈고닦은 시·군 대표 선수들이 출전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백운현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양한 학교 체육활동을 통해 출전한 선수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스포츠 활동 통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대회를 평가했다.



# 도민체전 운영개선 평가회 개최

효율적인 체전 운영과 발전방안 논의



경남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평가회가 6월 13일~14일 양일간 창원군 부곡 로얄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평가회에는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 등 임직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과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체전 운영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경기운영, 참가신청, 규정 등 대회 전반에 걸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했다.

첫날 평가회의 후에는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분임토의가 진행됐으며, 이튿날에는 총평을 끝으로 평가회가 마무리됐다.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개회식에서 “경남체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시·군체육회의 고견을 잘 담아 도민체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평가회를 통해 도민체전이 감동과 행복으로 경남이 하나 되는 멋진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역도단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격팀(공기권총)



부경양돈농협 볼링단



대저건설 태권도단

## 김해 4개 실업팀 합동 창단식

역도·볼링·태권도·사격 실업팀  
지도자 5명·선수 18명 선발 후 훈련 매진



김해 4개 실업팀(김해시청 역도, 부경양돈농협 볼링, 대저건설 태권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격)이 4월 15일 김해 시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합동 창단식을 갖고 올해 전국체전 출전을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날 창단식에는 각 실업팀 구단주들을 비롯해 시·도의원, 경상남도체육회, 김해시체육회, 각 종목협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의 체육인과 내빈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로 1억 원씩 총 3년간 지원을 약속하는 창단지원금 증서를 각 구단주들에게 전달하며 경상남도 체육 발전을 견인하는 실업팀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앞서 이들 구단주들은 지난해 12월 실업팀 창단 업무협약을 맺은 뒤 올해 3월 각각 역도(혼성), 볼링(남자), 태권도(여자), 사격(여자) 실업팀의 지도자 5명과 선수 18명을 선발, 창단작업을 마무리하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 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운영

선발된 12명은 12월까지 관련 이슈와 스토리 발굴 활동



경상남도체육회는 4월 11일 창원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현철 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명예기자단 1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명예기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명예기자들이 실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스포츠기사 작성요령과 취재·인터뷰 잘하는 방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경남체육회 지현철 사무처장은 발대식에서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운영하고 있다”며 “스포츠의 유익함을 350만 도민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기자단 활동을 열심히 하여 여러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제2기로 선발된 명예기자단은 개인 및 팀별 과제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경남체육 관련 이슈와 스토리를 발굴하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 최우수클럽에 진주스포츠클럽, 신규 스포츠클럽에 합천군 선정

‘2018 스포츠클럽 시상식’에서 단체표창 받아

진주스포츠클럽이 5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8 스포츠클럽 시상식에서 최우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단체표창을 받았다.

또 진주스포츠클럽 김현주 사무국장과 김미숙 운영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진주시 정현대 체육진흥과장은 스포츠클럽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진주스포츠클럽은 기획, 운영, 성과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고등급(AA)을 받아 3년 연속 우수클럽으로 발돋움했다.

합천군은 5월 2019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중소도시형)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9 지역스포츠클럽리그대회 공모사업’에 사천 스포츠클럽의 농구리그대회와 진주스포츠클럽의 수영 리그 대회가 선정돼 클럽 간 교류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지자체, 체육관련 단체, 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7일~9일 2019년도 2차 스포츠 클럽 공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정운영 100대 핵심과제인 공공스포츠클럽은 전국에서 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공공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경남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클럽명	설립연도	회장	사무국장	운영종목
사천스포츠클럽	2014년	-	강병용	배드민턴, 탁구, 국민체력100 등
진주스포츠클럽	2015년	김양수	김현주	수영, 요가, 헬스, 배드민턴 등
거창스포츠클럽	2015년	김진욱	허소진	댄스스포츠, 점핑교실, 유아체육 등
함양스포츠클럽	2018년	송경렬	배용덕	수영, 테니스, 탁구 등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	2018년	권태민	황요병	사격, 수영, 축구 등
함안스포츠클럽	2018년	이현석	이용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등
합천공공스포츠클럽	2019년 신규(법인설립 예정)			



# 생활체육광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스포츠7330 실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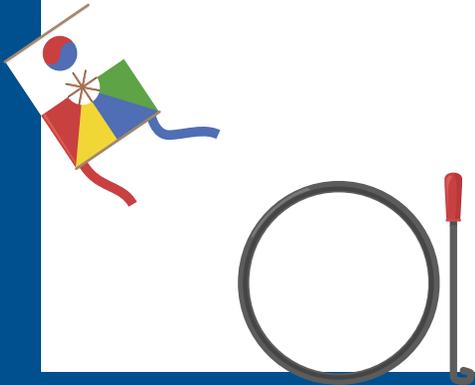
도내 17개 시·군 30개소에서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생활체육광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체육활동 현장에 지도자를 배치해 도민들의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국학기공, 생활체조, 요가 등 손쉽게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다. 생활체육광장을 통해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을 실천해보자.

## 생활체육광장 운영 현황

연번	시군	광장명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시간	지도자명
1	창원시	팔룡동남산공원	국학기공	4~12월	06:00~07:00	이숙자
2		소답초등학교	건강체조	4~12월	06:00~07:00	황정임
3		용마공원	생활체조	4~12월	07:00~08:00	심순영
4		반송공원	택견	4~12월	08:30~09:30	배진애
5		해운중학교	국학기공	4~12월	06:00~07:00	백순미
6		3·15공원	국학기공	4~12월	18:30~19:30	하명숙
7		석동체육공원	국학기공	4~12월	19:00~20:00	박유진
8	진주시	신평광장	생활체조	4~12월	19:50~20:50	이은정
9		진주종합경기장 광장	생활체조	4~12월	19:30~20:30	이은진
10	통영시	아침광장	에어로빅체조	4~12월	05:30~06:30	유수자
11	사천시	망산공원	에어로빅체조	4~12월	06:00~07:00	최미혜
12		정동생활체육시설	줄바댄스	4~12월	17:30~18:30	하혜선
13	김해시	거북공원	국학기공	4~12월	06:00~07:00	박미라
14	밀양시	삼문동체육공원	국학기공	4~12월	06:00~07:00	한영수
15	거제시	장승포수변공원	국학기공	4~12월	08:00~09:00	김담희
16		중곡근린공원	국학기공	4~10월	20:00~21:00	김담희
17		독봉산웰빙공원	국학기공	4~10월	20:00~21:01	허남돌
18	양산시	덕계초등학교	생활체조	4~12월	06:00~07:00	최희숙
19		석산근린공원	국학기공	4~10월	06:00~07:00	전부현
20		양산위터파크	생활체조	4~10월	06:00~07:00	김명화
21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조	4~12월	6:00~07:00	배영숙
22	함안군	함주공원내 야외공연장	국학기공	4~10월	20:00~21:00	전정남
23	창녕군	문화광장	생활체조	4~12월	18:00~19:30	박재화
24	고성군	남산공원	에어로빅	4~12월	06:00~07:00	정해선
25	남해군	남해공설운동장	요가	4~12월	06:00~07:00	임혜정
26	하동군	하동송림공원	생활체조	4~12월	19:30~20:30	김민나
27	산청군	산청읍주민자치센터	체조	4~12월	19:00~20:00	이영옥
28	함양군	상림광장	에어로빅	4~12월	06:00~07:00	김혜은
29		요가광장	요가	4~12월	18:00~19:00	이종숙
30	거창군	스포츠파크	생활체조	4~12월	20:00~21:00	문명자

# 경상남도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 ‘눈길’

6월 거제 장평초,  
사천 용산초에서 전통스포츠·  
민속놀이 보급



사천 용산초

경상남도체육회는 6월 5일 거제 장평초등학교와 6월 11일 사천시 용산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9 경상남도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국학기공, 태권, 씨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스포츠와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재미 있는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특히 경남국학기공협회, 경남씨름협회, 경남태권회 시범단의 시범과 함께 전통종목 강습을 실시해 주목을 끌었다.

지현철 사무처장은 개회식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전통스포츠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얼을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시

간을 만들어주자 전통놀이 한마당을 마련했다”며, “민속놀이를 체험하여 생활 속에서 신나게 즐기고 건강도 가꾸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체육회는 전통놀이 한마당에서 사용된 용품을 학교 운동회 또는 체육 교과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기증했다.



거제 장평초

---

## 경상남도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 선임



김경수 경남도지사(도체육회장)는 5월 27일 오전 경남도청 도지실에서 경상남도체육회 김오영 신임 상임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레슬링 선수와 지도자생활을 마치고 마산시의회 부의장과 도의회 의장을 하는 동안 도체육회 이사, 도생활체육회 부회장, 마산시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았으며, 경남대 석좌교수와 마산대 특임교수를 거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 상임감사를 역임하는 등 체육계와 공직을 두루 겸비해 상임부회장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남도체육회는 5월 17일 제17차 이사회(서면)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 인준 절차를 완료했으며, 상임부회장 보선을 통해 대

외적인 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경상남도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아우르는 경남체육 전반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이 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엘리트 선수육성은 기본으로 하면서 “도민이 함께 평등하게 즐기는 경남생활체육으로 도민이 화합하고 하나 되어, 도정의 큰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남체육회의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오영 상임부회장, 하계 강화훈련 선수 격려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6월 27일 마산대학 유도장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하계 강화훈련 중인 경남도청과 마산대 유도팀 등 도내 주요팀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 및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며,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훈련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건강관리와 부상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번 하계 강화훈련을 통해 경남이 19년 연속 상위입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경남체육회는 전국체전 경남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신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6월 2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전체 64표 중 기권 2표, 찬성 57표를 획득해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최초의 IOC 위원이자, 통산 11번째 IOC 위원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대한민국은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한 중국에 이어, 유승민 위원과 더불어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 이기흥 신임 IOC 위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로 혁신해 스포츠 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 2019년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2019년 회원종목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체육단체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2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개최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회원종목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 IOC 연계 (성)폭력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6월 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IOC 연계 (성)폭력 예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IOC의 폭력·성폭력 정책 전문가인 Susan Greining(IOC Senior Manager)과 Kirsty Burrows(IOC 상담사)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국내에서는 유승민 IOC선수위원,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 위원,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성)폭력 예방정책 개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선수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가이드스(3종), 업무 매뉴얼, 표준 교안 등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9 한·일 친선 생활체육 국제교류

경상남도체육회와 일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미니배구 연맹과 일본홋카이도미니배구협회가 주관한 '2019 한·일 친선 생활체육 국제교류'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와 아사히카와 일원에서 열렸다. 경상남도체육회는 한국선수단 16명을 파견했다. 미니배구는 1972년 일본 홋카이도 도카치 지역에서 탄생 생활스포츠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한편 경상남도과 일본 홋카이도 우호교류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한·일 생활체육 국제교류 사업은 2012년도부터 미니배구 종목을 선정하여 매년 양국선수단의 상호 초청·파견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12명의 일본 선수단이 거제시를 방문한 바 있다.



## 경상남도체육회, 경남체고 선수 격려



경상남도체육회는 6월 25일 체육인재 양성의 산실인 경남체고를 방문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100일 강화 훈련 결의식'을 갖는 교직원과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 등 직원과 경남체고 왕수상 교장을 비롯한 종목별 감독 및 지도자, 선수 300여 명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100여 일 앞두고 상위 입상을 위한 필승을 다짐했다.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우수 체육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은 경남체고의 왕수상 교장선생님과 감독 및 지도자,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전국체전 19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경남도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여달라"고 말했다.

## 경상남도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체육회는 6월 19일 임원 간담회와 6월 21일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오영 경남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임원 간담회에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무이사 간담회에서는 "경남체육의 중심에서 늘 고생하시면서 각 종목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무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100회 전국체전 100여 일을 앞두고 우리 경남이 19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도체육회 주요업무 현황 보고와 함께 전국체전 참가 및 상위입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경남체육회 카누팀, 파로호배 전국대회 종합우승

경상남도체육회 카누팀이 6월 12일~14일 강원도 화천호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 18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카누 여제 이순자·김국주 선수는 각각 개인 주종목 K-1 500m과 K-1 200m, 4인 단체종목 K-4 200m와 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전유라·이나래 선수 역시 4인 단체종목 K-4 200m와 500m에서 이순자·김국주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카누팀 임용훈 감독은 “4명의 선수들이 하나같이 강한 정신력과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 경상남도체육회, 아동복지시설에 자전거 10대 기증



경상남도체육회는 5월 10일 오후 4시 사회복지법인 합천애육원에 자전거 10대(4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날 합천애육원에 기증한 자전거는 경상남도 선수단이 지난 4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종합시상 부문 질서상 1위를 차지해 받은 부상품이다. 경남체육회 지현철 사무처장은 “뜻깊은 자전거를 기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큰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도·시군체육회, 지방체육 활성화 토론회서 “체육회장 총회 선출” 건의

경상남도체육회와 도내 시·군체육회 임직원 40여 명을 비롯한 전국 체육회 관계자들이 5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회장선출 방식을 선거인단이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법정법인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선우 거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인단을 통한 민간 체육회장 선출 강행 시 선거과정에서 파벌대립, 지방체육계의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체육인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 ‘창원시 한마음 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 개최

창원시 최대의 생활체육대회인 ‘2019 창원시 한마음 생활체육대축전’이 6월 1일~2일 축구, 배구, 게이트볼 등 44개 종목에 걸쳐 1만1,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마산체육관 등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창원시체육회 주최,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허성무 시장은 “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창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0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결의대회



진주시는 제30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6월 27일 진주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준비위원 및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제30회 대회 진주시 개최를 앞두고 준비위원회 발대식 및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보고, 결의문 낭독 및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30회 대축전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18개 시·군 2만여 명의 선수단이 모여 정식종목 27개, 시범 4개, 총 31개 종목에서 서로의 기량을 펼치는 경남도민의 대축제 한마당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350만 경남도민이 단결해 하나 되는 대화합의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온 열정을 쏟아 역대 최고의 대축전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통영서, 6개 전국대회 열전

6월부터 7월초까지 6개의 전국대회가 통영에서 개최돼 7,000여 명의 선수가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먼저 6월 6일부터 4일간 열린 제7회 이순신장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제13회 한산대첩기 생활체육 전국 남녀배구대회(6.8~6.9), 제2회 통영시장배 전국 당구대회(6.14~6.16), 제1회 한산대첩배 전국 배드민턴대회(6.22~6.23), 제6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오픈탁구대회(6.28~6.29), 제16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길거리농구대회(7.6~7.7)가 연이어 열려 스포츠 열기로 가득했다.



## 제16회 사천시장배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체육대회 열려

학교체육 활성화와 2020년 경남도민체전 고등부 선수 선발을 위한 제16회 사천시장배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체육대회가 지난 6월 14일 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사천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해 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다. 남고부는 육상, 배구, 씨름, 탁구, 배드민턴, 농구, 축구 7개 종목, 여고부는 농구, 축구를 제외한 5개 종목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대회 참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날리고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우수선수를 발굴해 내년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의령군 동호인들의 축제 ‘의령군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령군은 5월 19일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이선두 군수, 손태영 군의회 의장, 손호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18개 종목별 임원 및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의령군생활체육대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야구, 궁도, 축구 등 18개 종목 2,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개회식 대회를 통해 “오늘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제7회 함안군수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성황

제7회 함안군수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5월 2일 함안스포츠타운 내 축구장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25개팀 6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함안군체육회 산하 그라운드골프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단체전에서 합천군이 우승했으며, 개인전 1위는 이화재(양산시), 2위는 장노미(대구달서구), 3위는 김병섭(산청군) 선수가 차지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개회식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운동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대중 스포츠로 각광 받는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편안한 여가시간을 위해 시설 확충과 대회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군체육회 임직원, 농가 일손돕기 자원봉사

창녕군체육회는 6월 18일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서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 권유관 상임부회장 등 임직원 12명은 경남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자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감자 수확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권유관 상임부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체육인들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 고성군체육회, 2019년 제2차 이사회 개최



고성군체육회는 6월 12일 고성박물관 강의실에서 백두현 고성군수, 권우식 고성교육장, 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결산건을 보고하고 고성군종목단체 규정 개정, 고성군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고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2019년 고성군체육회 자체운영비 예산 수정 의결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김홍찬(고성소방서장) 신임 부회장을 비롯한 신임 이사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남해군, 스포츠대회로 풍성한 6월

스포츠 건강 도시, 보물섬 남해군은 5월과 6월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연이어 개최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5월에는 남해군 협회장이 생활체육축구대회, 야구협회장배 사회인 야구대회, 보물섬배 남해 전국탁구대잔치가 연이어 열려 스포츠 열기로 가득했다. 또 6월에는 제4회 남해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제3회 남해군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제6회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제30회 남해군배구협회장기 직장 및 천선 배구대회, 제1회 남해군수기 경남게이트볼대회, 제17회 남해군수기 직장축구대회, 제4회 보물섬볼링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 제29회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성료

제29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 겨루기대회가 6월 21일~23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선수, 지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남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진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는 8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초등부 4체급, 중등부 및 고등부 3체급, 일반부 2체급 등 4개부 12체급으로 나뉘 치러졌으며, 이번 대회는 전국체전 경남 대표선수 2차 평가전을 겸해 진행됐다.



## 전국 남·여역도선수권대회 겸 생활체육역도대회 고성서 개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제91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및 제33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 겸 '제1회 전국생활체육역도대회'에서 경남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경남역도연맹과 고성군역도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경남은 남일부 109kg급 정기삼(경남도청), 남대부 87kg급 윤하제(경남대), 남고부 102kg급 최동이(마산삼진고)·73kg급 박형오(경남체고), 여고부 71kg급 박예인(경남체고), 남중부 89kg급 문성훈(고성중)·96kg급 하성민(진주중)·102kg급 김동현(고성중), 여중부 45kg급 구혜나(김해 영운중) 등 14명이 3관왕을 차지했다. 남일부 81kg급 김성민(경남도청)을 비롯한 7명은 2관왕에 올랐으며, 67kg급 한명목(경남도청)은 인상에서 146kg을 들어 올려 한국신기록을 1kg 경신했다.

## 제11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성황

6월 15~16일 산청군 공설테니스장 등에서 18개 시·군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별 순수동호인으로 임원조 포함 7복식을 구성해 대항전을 진행했으며, 폭넓은 연령층의 선수들이 다양한 복식조를 구성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결과 김해시가 시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4-2로 누르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군부에서는 창녕군이 함안군을 4-2로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 경남축구협회, 제24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제24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창원군 스포츠파크에서 고등부 42개팀(고학년 28개팀, 저학년 14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펼쳐졌다. 대한축구협회와 경남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축구대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저학년 대회를 함께 개최했으며, 전 경기를 야간경기로 진행해 학부모 및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회 결과 용인태성FC가 서울경희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며,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구미오상고와 함께 공동3위를 차지했다.



## 2019 고성 아이언맨 70.3대회 성황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성 당항포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2019 고성 아이언맨 70.3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 34개국 260여 명의 외국인 비롯한 1,800여 명의 철인들이 참가해 국내에서 치러지는 아이언맨 대회 중 최대 참가 규모를 자랑했다. 참가 선수들은 당항포관광지 일원 세계철인3종경기협회(WTC) 공인코스에서 수영 1.9km, 사이클 90.1km, 달리기 21.1km 총 3개 종목 70.3마일(113.1km)을 완주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대회를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될 당항포관광지를 주행사장으로 하고 아이언맨 대회의 모든 홍보 캐릭터에 공룡을 활용해 공룡 아이언맨 대회라는 별칭을 얻었다.

## 도내 탁구 동호인, 도지사기 탁구대회에서 열정 발휘

제22회 경남도지사기 탁구대회가 5월 17일부터 3일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경남탁구협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내 탁구 동호인 1,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첫날 라지볼 실버부 단체전과 개인복식 대회를 시작으로 일반부 개인단식, 개인복식, 단체전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참가자들을 배려해 선수부부터 7부까지 수준별로 대회가 진행돼 동호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경남도지사기 대회는 탁구의 지역 저변을 넓혀가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참가자들의 참여는 물론, 학생과 여성, 실버부에 이르기까지 탁구에 열정을 가진 폭넓은 계층의 많은 관심으로 대회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경남산악연맹,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종합 준우승

경남산악연맹 선수단이 5월 17~18일 이틀간 부산 사하구 물운대 일원에서 열린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 참가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등산대회는 전국 시도연맹에서 142개팀 4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악독도, 등산이론, 암벽등반, 매듭법 등 총 9개 평가항목을 두고 기량을 겨뤘다. 경남은 8개 부문 중 4개 부문(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 남대부, 여대부)에 참가해 출전 부문 모두 1위를 휩쓸었다. 특히 경상대는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남대부와 여대부 모두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끌었다.



## 경남 씨름 꿈나무, 전국 모래판 평정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남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어린이씨름왕대회에서 경남 씨름 꿈나무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다. 경남은 7명의 A, B팀이 단체전에 나서 모두 결승에 진출해 A팀(북성초, 충무초, 신방초, 신어초, 계룡초, 교방초)은 우승, B팀(북성초, 교방초, 신안초, 산청초, 충무초)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거제 계룡초 양사문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조정현 경남씨름협회 전무이사는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씨름 꿈나무를 양성할 수 있는 9개 초등학교 씨름부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 경남 중·고교 공사들, 화랑기 전국양궁대회에서 종합우승 명중

경남 중·고교 양궁선수단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화랑기 제40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금4, 은5, 동2개를 획득해 종합 득점 43.5점으로 2위 경기도(43점)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여고부 정다예나(진해여고)는 70m 금메달, 50m와 6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개인전 종합1위를 차지했다. 남고부 90m에 출전한 김민재(경남체고), 남중부 50m 구범준(동진중)과 여중부 30m 정은비(진해여중)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 경남은 단체전에서도 남중부와 중등부(훈성단체)에서 각각 세트점수 6대 0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 “스포츠·레저 등 시민 건강·행복에 온힘”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라. 운동장, 수영장 등 건강하고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도내 곳곳에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각 시군의 시설공단으로, 특히 창원시설공단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공단이다. 스포츠·레저 등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두지휘하는 창원시설공단 허환구 이사장을 만났다.

### Q 창원시설공단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

2000년 설립 당시 창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6개 시설을 수탁, 87명의 임직원으로 출범한 공단은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임직원 700여 명(정규직)이 근무하는 대규모 공단으로 변모했다.

현재 스포츠·레저, 복지, 장사, 환경, 교통, 공원 등 6개 분야 40개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6만~7만여 명, 연간 2,200만여 명의 시민이 공단 시설을 이용한다.

### Q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친절이다. 친절의 첫 단추는 인사가 아닌가. 현재 우리 공단은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는 행복한 창원시설공단’을 캐치프레이즈로 정착시켜 가고 있다. 상하 구분 없이 인사를 주고받다 보면 공단 내 행복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이



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나는 30년간 테니스를 했고 마라톤과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자칭 ‘스포츠클럽’이다. 따라서 현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하게 넘기지 않는다. 공단의 존재 가치는 시민의 행복이다. 그래서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꾸는 나비효과’는 하나의 힘이라는 의미의 ‘The power of one. Butterfly effect’라는 문구를 이사장실 벽에 붙여 놓고 공단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

**Q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도시 인프라와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기대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시민만족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시민의 일상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지방공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단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면서 요구사항도 적지 않은 편이다. 고객 접점지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상시 교육을 통해 항상 친절과 신속한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Q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중점 분야는.**

스포츠산업도 첨단산업이다. 우리 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스포츠·관광 시설을 잘 활용해 창원시와 더불어 경남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원국제사격장과 창원축구센터, 시립테니스장 등 우수한 경기시설을 활용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경남의 창원이 국제적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낼 것이다.

진해해양공원과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도 좋은 관광자원이다. 전국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경남 창원의 대

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혁신은 이를 수 없다. 변화와 혁신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능력 계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선진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

**Q 이사장으로서 임기내 목표는.**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설공단은 내년에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공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 능동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내도록 하겠다. 전 구성원에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소통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면 시청과 시의회, 민간단체 등과 협조와 정보 공유가 원활해진다.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수월해지므로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형 공단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소통을 통해 양질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글·사진 정재훈 작가



#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창업

윤거일 작가(스포츠에픽 대표·'나는 스포츠로 창업을 꿈꾼다' 저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축구 경기를 볼 일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홈팀인 세르베트FC가 2부리그 팀이었지만 많은 후원사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중에서도 구단용품의 공급을 맡고 있는 'FOURTEEN'은 제네바 소재의 스포츠용품업체로 세르베트FC의 형제구단인 제네바 럭비와 하키클럽의 용품도 담당하고 있었다. 든든한 후원기업의 존재는 구단의 승격과 지역 재정에도 보탬이 됐을 게 분명하다. 부러운 조합이었다.

우리 지역은 어떨까? 경남 지역에는 축구, 야구 그리고 농구 관련 프로구단이 있는 반면, 딱 떠오르는 스포츠용품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분야를 넓혀 보아도 프로구단 외에 스포츠 관련 기업의 존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스포츠기업이 많다는 의미는 그 지역에 자금, 인력, 아이템 그리고 스포츠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포츠기업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분명 다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기업도 존재한다.

경남과 인접한 부산의 경우 과거부터 신발산업이 발달해 르까프와 프로스펙스 같은 토종 운동화 브랜드를 배출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지금은 트렉스타, 비트로, 칸투칸, 카미스타, 업튼 등 여러 아웃도어 레포츠 브랜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프로스펙스는 부산의 한 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새로운 운동화를 개발했다. 해당 협업을 통해 참신한 제품 개발과 학생들의 현장 경험이라는 윈-윈 효과를 이끌어냈고, 인력 양성 및 채용으로 이어졌다. 다른 스포츠 브랜드도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체육의 발전 방향은 전문체육 성적이거나 생활체육 규모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지역 스포츠산업에서도 찾아야 한다. 그 저변이 약하다면 적극적으로 스포츠창업 활성화에 투자해야 마땅하다. 부산의 경우도 ‘아웃도어스포츠웨어브랜드비즈니스사업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국내 프로 야구단 중 최초로 롯데자이언츠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사직야구장 식음료 매장 부문 우수 아이템 공모’를 통해 스포츠창업 지원에 나서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지역체육회가 직접 스포츠창업 활성화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은 2016년 4월에 시행해 경기도체육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8개 기관이 121명의 창업자를 배출했다.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에 선발된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스타트업에는 최대 2,500만 원 이내에서 아이템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이 제공됐다. 또한, 특례보증 기회와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연계가 이뤄졌다.

지역체육회와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지역대학과 연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다. 2014년부터 권역별로 운영 중인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유치 경험이 있지만 경남은 아직 없다. 경남은 훌륭한 프로스포츠 및 해양스포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광업, 서비스업 등 관련 분야의 스포츠창업을 육성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기능성속옷을 만드는 ‘라쉬반’처럼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브랜드를 발굴해 지원하고, 신규 스포츠창업을 도와서 지역체육과 함께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하나 된 힘으로 물살을 가르다

# 경상남도체육회 핀수영팀 !!!

글·사진=강진우(자유기고가)

자유형보다 1.3배 빠르게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 갈퀴를 발에 끼고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데 그 모습이 돌고래를 연상케 하는 핀수영 선수들이다. 경남체육회 핀수영팀은 그중에서도 단연拔群이다. 비수도권 핀수영팀으로서 전국체전을 두 번이나 제패한 비결, 그 중심에는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는 단단한 팀워크가 자리 잡고 있다.

## 강한 단합력으로 자극하는 성장판

경남체육회 핀수영팀은 태생부터가 남다르다. 2010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전에서 남자 선수 5명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정식 창단으로 이어진 것. 이렇게 출발한 핀수영팀은 서승현 감독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성적을 유지, 전국 최상위권 핀수영팀으로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남체육회 핀수영팀이 1등 하는 선수만 영입하는 것은 아니다. 서승현 감독은 오히려 현재 성적보다 성실성과 발전가능성을 앞에 두고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창단 때부터 줄곧 이어져 온, 서 감독 말을 빌리자면 '나름대로의 전통'이다.

선수 영입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경남체육회 핀수영팀 소속 선수들이 주변이나 대회를 눈여겨본 뒤 서 감독에게 추천하면, 그는 면밀한 분석과 10년 경력이 빚어낸 통찰력으로 해당 선수의 성장가능성을 파악한 뒤 영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소속 선수들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남체육회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핀수영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 감독은 경남체육회 핀수영팀 특유의 ‘강철 같은 팀워크’를 그 첫 번째 원동력으로 소개한다.

“물론 단체전도 있지만, 핀수영은 기본적으로 개인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워크에는 신경을 안 쓰거나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단언컨대 우리 팀은 전국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주장인 윤미리 선수를 중심으로 서로의 운동을 돕고 함께 성장을 이뤄 가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팀 선수 10명은 각자 수영에 매진하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원팀(One Team)’인 겁니다.”

경남체육회 핀수영팀에 5년간 몸담고 있는 에이스 장형진 선수도 “팀 분위기가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에 몰두하게 된다”며 서 감독의 말에 힘을 실는다. 이 팀의 강한 단합력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 끝없는 연구와 든든한 지원으로 날개를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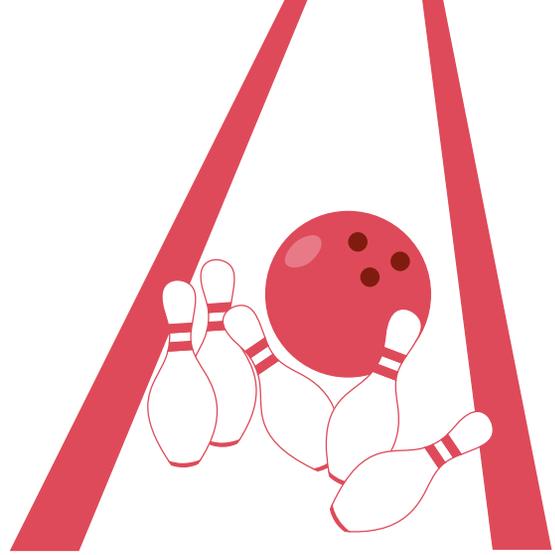
경남체육회 핀수영팀의 훈련은 색다르다. 수영 훈련과 근육 운동을 병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할 게 없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눈이 동그해진다. 스펀지를 매단 허리 벨트로 수중저항훈련을 하는가 하면, 고산지대 사람처럼 산소포화도를 늘리는 훈련도 병행한다. 다른 핀수영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훈련 장면. 이 모든 훈련과 상당수 훈련도구는 서승현 감독이 직접 고안했기 때문이다. 주장으로서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윤미리 선수는 “감독님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말로 서두를 땀다.

“감독님은 항상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선수들 훈련에 효율성을 더할지, 보다 효과적인 근육운동법이나 재활운동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보시고, ‘이거다’ 싶은 내용은 저희에게 알려 주고 훈련에 적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중저항훈련의 효과를 톡톡히 느꼈고, 발목이 안 좋을 때는 상황에 맞는 재활운동법을 일일 단위로 처방해 주셔서 회복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핀수영팀에 대한 경남체육회의 든든한 지원과 강한 믿음도 서 감독과 선수들을 나아가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공사로 기존 훈련지인 서울체고 수영장을 쓸 수 없어 인천체고와 서울을 매일 오가야 했는데, 경남체육회의 차량 지원으로 이동상 어려움 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덕분에 경남체육회 핀수영팀은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자랑한다. 인방에서 치러진 91회에 이어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머쥐었고, 준우승도 두 번 차지했다. 비수도권 핀수영팀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의 성적. 그렇기에 서승현 감독과 선수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매일같이 붉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나로 똘똘 뭉친 이들의 힘찬 ‘물살 가르기’가 과연 어디까지 닿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전국 최초의 기업 볼링팀, 주목받고 있는 신생팀 김해 부경양돈농협 볼링팀



2023년 전국체전을 유치한 김해가 '체전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은 체육 육성을 위해 실업팀 4개를 창단했다. 역도(김해시청), 사격(김해시도시개발공사), 태권도(대저건설), 볼링(부경양돈농협)이다. 그중에서 볼링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 남자 볼링 실업팀은 13개, 여자 실업팀은 15개 등 28개 팀이 있지만 모두 관공서팀이다. 부경양돈농협이 최초로 기업팀으로 창단하면서 전국 볼링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탄탄한 지원으로 호성적 결실

박춘길 감독은 “팀을 창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흔쾌히 창단하고 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줘서 고맙다”며 “볼링계 선배들도 ‘잘 관리해서 성적도 내야 하지만 오래 유지되도록 해 실업팀 창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다”고 말했다.

벌써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볼링팀은 경남

체육회에서 운영했다. 전국체전에서 점수는 땀지만, 메달이 없어 답답하던 상황. 경남 볼링은 2009~2010년 두 해 동안 반짝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부경양돈농협이 창단하고 3번째 출전했던 지난 6월 볼링협회장배 마스터스에서 조영선이 금메달을 따냈다. 조영선은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로 유튜브 ‘볼링마스터즈’ 채널에 굉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스타이기도 하다. 이 대회

에서 부경양돈농협은 개인전(조영선)과 3인조(조영선·최호석·홍준영)에서 동메달, 개인종합(조영선)에서 은메달을 합작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실업연맹전에서도 3인조 2위를 차지하는 등 10월 서울에서 열릴 100회 전국체전에서의 활약에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 단단한 팀워크로 상승세 유지 목표

현재 부경양돈농협은 김해 장유에서 합숙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선수단은 주장 김효겸을 비롯해 배수욱, 조영선, 홍준영, 최호석, 이승우 등 6명. 무엇보다 전국체전 성적이 중요한지라 모든 일정을 체전에 맞춰 훈련한다.

박춘길 감독은 “신생팀이라 팀워크를 다지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했지만,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며 “지난 대회에서는 김효겸, 조영선, 배수욱 선수가 3인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최호석, 홍준영 선수가 힘을 냈다. 다가올 대통령기대회와 전국체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 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팀을 창단한 부경양돈농협이 홍보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박춘길 감독은 “유튜브에 볼링 개인방송이 많다. 이번에도 조영선의 마스터스 경기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유튜브로 중계를 다 했다”며 “부경양돈농협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고 우승했는데 회사 사무실에서 중계를 틀어놓고 다 함께 응원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 어려움 딛고 성장해 가는 볼링계

지금 팀에 시급한 것은 세대 차 극복이다. 34~35세 선수가 3명, 24~25세 선수가 3명으로 10년 차가 나고 중간에 선수가 없다. 특히 20대 선수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 볼링 종목이 없어 현역~공익요원까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군대 공백기를 끝내고 다시 선수로 복귀하려면 입대 전에 어느 정도 성적도 거두고 입지를 마련해둬야 한다. 박춘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경남 볼링은 인프라와 비교하면 선수층이 두껍지 못하다. 아무래도 학원 스포츠 약세인 시대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호인 규모에서는 전국에 내놔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특히 동호인 볼링이 활성화된 데는 최근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록(Rock) 볼링’ 효과가 컸다는 게 박 감독 생각이다. 박춘길 감독은 “록 볼링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20~30대 볼링 인구가 거의 없었다”며 “유흥으로 록 볼링을 접했던 젊은 세대가 이제 정통 볼링으로 돌아오면서 저변이 많이 확대됐다”는 것.

특히 볼링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데다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볼링장에 가면 볼링화부터 공까지 전부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기온에 따라 레인 컨디션에 차이가 큰 만큼 볼링장 내부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춘길 감독은 동호인이라도 볼링 저변이 확대되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 장유여성자전거회 '활력 페달' 밟으며 즐겁게 달린다

아파트가 높이 솟은 김해시 장유에서 질풍처럼 길을 누비는 자전거 군단과 마주쳤다. 월·화·수·목·금요일 매일 꾸준히 출석도장을 찍는다는 이들은 바로 '장유여성자전거회'다. 장유여성자전거회는 올해로 벌써 1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회원 수만 8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동호회다. 자전거가 좋아서 길따라 벗따라 페달을 밟아온 회원들을 만났다.



## 30대부터 60대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

평일 아침 9시면 장유 신문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의 자전거동호인들을 볼 수 있다. 30~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장유여성자전거회 회원들이다.

라이딩은 수변공원에서 모여 정하는데 매일 코스가 달라진다. 라이딩 강사 1명과 장유자전거교실 훈련 강사 1명을 주축으로 진영읍 주천지역과 봉하마을, 진례면 등 김해 전역을 달린다. 한번 모이면 2~3시간은 달려 기진맥진할 법도 한데 지친 기색이 없는 에너지이저들이다.

1기 멤버 이경례(67) 씨는 "자전거를 타니까 항상 활기차고 평상

시 걸을 때 몸이 가뿐합니다. 또래들은 자전거 라이딩을 잘 안 하는데 오히려 다른 운동과 달리 세대 차이도 안 나고 오전에 타고 나면 오후에 힘이 넘쳐요"라며 자전거라이딩을 치켜세웠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가입 전, 스트레스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몇몇 회원들은 라이딩 후 그런 증상이 전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주부, 학원강사, 자영업 등 저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엄마가 즐거워하니 가족들도 동호회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자전거교실을 맡고 있는 류종현 강사는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갱년기가 찾아오면 우울증도 생기잖아요? 운동을





통해 이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건강을 되찾아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죠”라며 만들게 된 동기를 말했다.

### 체계적인 훈련 아래 쉽게 배우고 익힌다

장유여성자전거회 회원들은 대다수 장유여성자전거교실을 거쳐 입학했다. 길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친한 이웃 또는 친자매를 따라 들어온 사람도 있다. 동호회에는 다른 도시에서 온 라이더들이 꽤 있다. 자전거를 전혀 탈 줄 몰라도 자전거 교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아래 강습을 받다 보면 금방 익힌다고 명성이 자자해 가입했다고 한다.

자전거교실 강습은 분기당 하루 2시간씩 총 20회를 진행한다. 김해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수료는 1년에 4회이며 이번 수료생들은 총 15명이다. 이들은 평균 2개월 정도의 연수기간을 거친 뒤 동호회에 입학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입학한 윤광숙(50) 씨는 지난 4월 수료했다. 자전거의 매력이 무엇인지 묻자 윤 씨는 “자전거 위에서는 오직 나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집중해야 안전하고 내가 안전해야 다른 회원들도 안전해지죠. 그렇다보니 사고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윤 씨의 말처럼 동호회는 회원들의 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회원들 개개인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 외에도 강사 2명과 회원 소속의 임원단 6명



이 앞뒤 좌우로 회원들의 안전을 지킨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회원이 다치거나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 지역사회로 향하는 긍정에너지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매년 봄과 가을에 야외 소풍 라이딩을 간다. 올봄엔 50여 명의 라이더가 하동 쌍계사 십리벚꽃길을 달리고 왔다.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회원 30여 명은 자전거 행진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축제기간 회원들은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수행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김영심 회장은 “올 8월이면 장유여성자전거회가 10주년을 맞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어울려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회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 단체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장유여성자전거회. 이들은 오늘도 긍정 에너지를 내뿜으며 즐겁게 ‘활력 페달’을 밟는다.

글 정재훈·사진 김정민 작가



## 무적함대 진주 선명여고 배구팀



### ... '어벤져스', '레알 선명'.

'어벤져스'는 강력한 슈퍼히어로들이 뭉쳐 지구를 지키는 영화이고, '레알'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축구선수들만을 영입해 스페인 프로축구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 팀을 말한다.

11년간 국내 여자고등학교 배구 대회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무적함대, 진주 선명여고 배구팀. '어벤져스', '레알 선명'은 굳건하게 정상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선사하는 찬사 어린 수사(修辭)다. 선명여고 배구팀은 지난 1987년 창단해 올해로 32년이 되는 전통의 배구 명문으로 국내 여자배구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동안 선명여고에서 배출한 수많은 선수들은 대학과 실업, 프로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 현대여자배구단의 이다영과 흥국생명배구단의 신연경, 이

재영, IBK기업은행의 변지수, 한국도로공사의 하혜진, 유서연, 이원정, GS칼텍스의 박혜민, KTG인삼공사의 최은지, 지민경, 박은진, 이예슬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선명여고는 올 6월 기준으로 우승만 35회, 준우승 8회, 3위 5회 등 출전만 하면 우승을 도맡아 해 왔다.

특히 2009년부터는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여고배구팀에서 적수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다. 11년간 이어온 '무적' 선명여고의 배구 전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 선명여고, 왜 강하나

한 팀이 강산이 변하는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정상을 지키고 있



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선명여고에는 경남 출신 선수 외에도 광주나 수원,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에 18개의 여고 배구팀이 있지만 많은 선수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원해서 선명여고를 찾아오고 있다. 바로 선수들을 잘 육성하는 선명여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에다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하면서 출신학교에 주는 학교발전지원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체육관에는 전용 배구코트 2면과 재활실, 체력단련장 등이 있어 여고 배구팀 가운데서는 시설도 최상급이다. 정규 수업 후 오후 3시 30분께부터 공동훈련을 하지만 저녁시간은 선수들 개인에게 맡기는 자율훈련을 한다. 조직이 우선인 배구팀의 특성상 선수 간 지나친 경쟁으로 팀워크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명여고는 일찌감치 ‘공부하는 선수’ 육성을 표방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은 자율훈련도 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재능기부로 회화 위주의 일본어와 영어 특별수업을 한다. 일 년에 7개인 전국대회에도 모두 출전하지 않고 전국체전 등 굵직한 4개 대회 정도만 출전한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무리하게 전 대회에 출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선수들을 혹사시키지 않는 배구팀의 운영에 믿음을 보내고 있다. 친구 같은 스승처럼 지내는 감독과 코치, 선수 간의 스스럼없는 관계도 팀워크를 배가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선명여고가 처음부터 강팀은 아니었다. 1987년 창단 후 간간히 우승도 했지만 지금의 배구팀으로 변신한 것은 김양수 총감독의 발품이 큰 밑천이 됐다. 진주 동명중·고등학교와 경기대에서 배구선수 생활을 하고 한일합섬 배구단의 코치를 역임한 김양수 총감독은 부임 후 선수들 영입에 큰 공을 들였다. 각 학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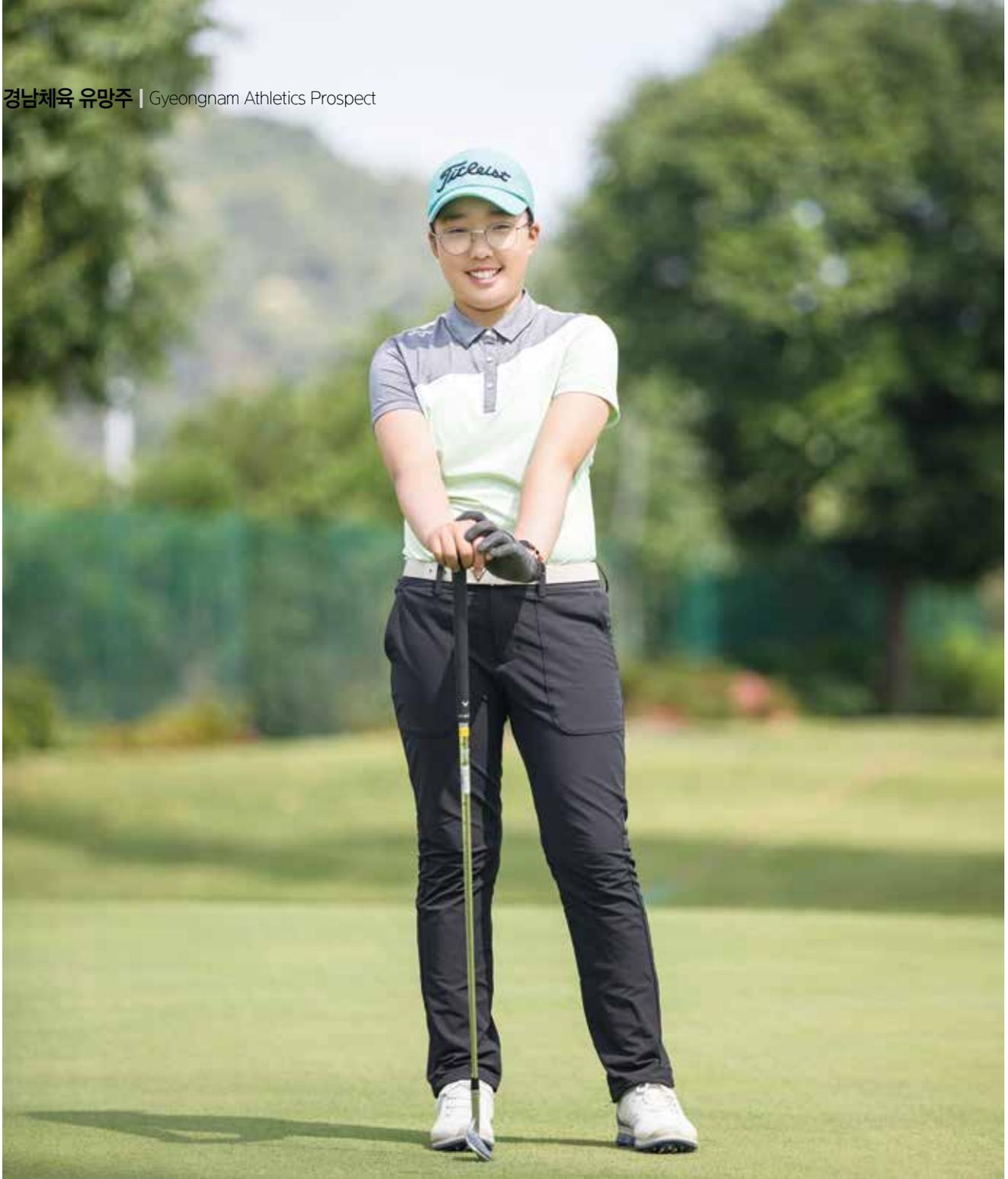
돌아다니며 우선 키가 큰 학생들을 살펴보고, 주변에도 키 큰 학생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육상경기가 열리면 찾아가 선수들을 물색하기도 했다. 김 감독의 발품이 쌓여 2009년께부터 성적이 나기 시작했고, 무적 선명여고 배구팀으로 변모했다. 주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우수 선수들이 많이 몰리는데 여자배구만 지방인 선명여고로 몰리기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로 유명한 이재영, 이다영이 선명여고에 합류하면서 선명여고 배구팀의 주가는 더 뛰어올랐다.

### ●●● 전설은 계속된다

선명여고 배구팀은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을 비롯해 춘계연맹전, 태백산배, 종별선수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4관왕을 달성했지만 박혜민(GS칼텍스), 박은진, 이예슬(이상 KGC인삼공사) 등 지난해 팀을 이끌던 선수들이 졸업하면서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명여고의 저력은 남아 있었다. 우려 속에 열린 지난 5월 ‘전국남녀 종별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여자배구의 차세대 공격수로 손꼽히는 190cm의 정호영(3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술, 황다운, 김단비, 최소미, 박혜진, 한미르, 박지원, 김세인, 양유경, 김세연 선수들의 조직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호영은 높은 점프력을 바탕으로 한 블로킹은 물론 공격타점도 높아 2018년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배구 성인 대표팀 1군에 발탁되는 등 팀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공사 등에서 코치로 있다가 선명여고로 부임한 이광득 지도감독은 그동안 여자배구프로팀에서 얻은 노하우를 선수들에게 세세하게 전수하면서 선명여고만의 끈끈한 조직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선명여고 배구팀, 그들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다.



## 내일은 골프 국가대표! 골프로 세계를 넘보다

창원 무학초 5학년 이효송

어떻게 초등학생에게서 저런 집중력이 나올 수 있을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공 하나에 집중한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속상해서 눈물을 쏟을 줄도 아는 아이. 그 눈물의 쓴맛을 알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효송이에게 슬럼프는 그저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성장통에 불과하다. 날마다 좌절하고 또 날마다 슬럼프가 찾아오지만, 슬럼프를 딛고 국내 골프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효송 학생을 만났다.

## 경남 골프계를 떠들썩하게 한 ‘골프 신동’

창원 무학초 5학년 이효송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여름에 우연히 할아버지와 골프장에 갔다가 골프채를 잡아본 것이 계기가 되어 골프에 입문했다. 골프 입문 3년 만에, 그것도 초등 5학년의 나이에 지금까지 19번 우승컵을 안으며 ‘골프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6학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지만, 2019 전국 소년체육대회 골프 여자 초등부 단체전 금메달, 2019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 제2회 서라벌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 우승 등 변함없는 골프 신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린 밖에서 직접 만나보니, 어마어마한 성적에 비해 체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같이 경쟁하는 6학년 선수들에 비해 작은 체구지만, 작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 효송이의 시원한 드라이버 샷을 보고 있으면 프로 선수들조차 깜짝 놀라곤 한다. 효송이의 가장 큰 장점인 드라이버 샷은 평균 비거리가 200m가 넘고 최고 240m까지 보낼 수 있다. 나이와 체격에 비하면 가히 국내 최고 수준인 셈이다.

코치이자 매니저로 효송이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할아버지는 그 비결을 “어떻게 힘을 쓰는지 잘 알고 있는 아이다. 힘을 빼고 공을 멀리 보내는 데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은 ‘연습 또 연습’

드라이버의 비거리와 퍼터의 정확성이 돋보였던 효송이에게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왔다. 지난겨울, 잘 되던 퍼팅이 갑자기 흔들렸다.

“어느 순간부터 퍼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



다가 퍼터를 바꾸고 하루 두세 시간 퍼터 연습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부터 퍼팅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긴 겨울을 퍼터에 매달린 결과 지금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몇 년 전에도 효송이는 갑작스레 찾아온 성장통을 앓기도 했다.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고 어깨가 돌같이 딱딱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직하게 연습에만 매진했고, 몇 달에 걸친 성장통을 이기고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

## 국가대표 달고 정정당당하게 실력 보여주고파

효송이는 이르면 올해 말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올린 덕분에 지금까지 전국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비군 진입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효송이는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나, 누구나의 꿈이 그런 것처럼 골프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고 싶다.

“골프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매너 있고 양심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펼쳐 정상에 서는 멋진 골프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모두 골프 신동이라 했지만 효송이는 그저 공을 쳐서 훌쩍에 넣는 것이 재미있어서 골프를 칠 뿐이었다. 순수하게 골프를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좋아하는 골프로 세계 최고를 꿈꾼다.

글 김규남·사진 김정민 작가



## 진주스포츠클럽 생활스포츠 즐기며 복지 누린다

진주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보급과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 문을 열었다. 개설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우수클럽으로 선정되며 뛰어난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남다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

### 3년 연속 우수 클럽의 비결은 '대화'

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2015년 문을 열고 진주실내체육관과 진주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5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및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영과 헬스, 배구, 테니스를 비롯한 15개 종목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에게 생활스포츠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진주스포츠클럽은 짧은 역사에도 우수한 운영 실적을 보여주면서 클럽 개설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우수클럽

으로 선정됐다. 지금도 전국 스포츠클럽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데, 김헌주 사무국장은 '좋은 건 나눠야 한다'며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내어놓는다.

진주스포츠클럽이 우수클럽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진주스포츠클럽은 수영과 헬스, 배드민턴 외에도 펜싱, 패러글라이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펜싱 취미반을 만들어 관심도가 높은 학생은 엘리트체육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패러글라이딩 취미반을 만들어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운영할 때 적자가 3억 원이 넘던 것을 진주스포츠클럽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것도 눈에 띈다. 회원 수도 이전보다 400명에서 800명가량 늘어난 것도 우수한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접어두고, 우수 클럽의 비결은 바로 ‘화합과 대화’다.

“매주 화요일 진주스포츠클럽, 진주시 체육진흥과,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 장애인 체육회 등 4개 단체가 모여 진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 협의를 하니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관계가 좋으니 자연스럽게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 회원들의 민원은 더 좋은 클럽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처음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당시, 미처 공간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한 탓에 회원들의 민원이 잦았다. 김현주 사무국장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합당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맞는 일인지 확인한 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잡습니다. 덕분에 진주스포

츠클럽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덕분에 부족했던 샤워실을 늘렸고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장애인도 장애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현재 진주스포츠클럽 회원 중에는 장애인이 3명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회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 회원 전용 출입구를 만들었다. 또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탈의실과 샤워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회원들이 민원을 넣어준 덕분에 진주스포츠클럽은 누구나 찾아오기 편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체육도 복지다

진주스포츠클럽은 ‘체육도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건강하기만 하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모든 복지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슬로건처럼 많은 시민이 체육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진주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다.

글 김규남·사진 김정민 작가



(왼쪽부터) 김쌍선 관리팀장, 김미숙 운영팀장, 김양수 회장, 김현주 사무국장, 강대훈 직원, 정은희 직원, 하성훈 배드민턴 지도자.



## 창원기공, 무학기 축구대회 공동3위!

### “경남의 미래는 바로 우리!”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창원군 스포츠파크에서 ‘제24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펼쳐졌다. 그중 고학년부는 총 28개교가 참가했다. 경남권 학교에서 8개팀(철성고, 거제고, 창원고, 창원기공, 마산공고, 범어고, 김해 FC, 창녕FC)이 참가해 창원기공이 공동3위, 거제고가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9일 열린 8강전에서 거제고는 서울 경희고를 만나 전반전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서 아쉽게도 자책골을 내주며 2대 3으로 역전패하고야 말았다. 골키퍼 주상민 선수가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희고의 벽은 넘을 수가 없었다. 거제고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주장인 정혁 선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거제고의 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창원기공과 경북 영문고의 경기가 이어졌다. 직전 경기인 청주 대성고와 용인태성FC와의 8강전이 승부차기에 무려 62명의 킥어가 나와 28대 29라는 비공식 세계신기록을 세운 승부차기 탓에 예정보다 경기가 늦게 시작했다.

창원기공 역시 0대 0으로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다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승부차기로 올라온 전적이 있는 창원기



공인 만큼 경북 영문고를 5대 4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주장인 3학년 구정모 선수는 “팀원들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열심히 경기에 임해줘서 승리할 수 있었다. 팀원들에게 잘 따라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11일 창원기공의 4강전이 열렸다. 상대 팀은 거제고를 꺾고 올라온 서울 경희고였다. 경희고의 골키퍼 권재범 선수가 지난 거제고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무실점 경기를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지난 제21회 무학기 축구대회에서 준우승, 2018년 8월 백록기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축구 명문인 만큼 창원기공 선수들의 부담감이 컸다.

경기 결과가 선수들의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 학부모의 응원 열기 또한 뜨거웠다. 선제골은 창원기공에서 터뜨렸다. 전반 37분, 창원기공 주장 구정모 선수가 찬 코너킥을 오묘한 선수가 그대로 슈트로 연결해 경희고의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3분 뒤 경희고의 거센 반격으로 동점골을 허용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 창원기공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몇 차례 경희고의 골문을 위협했다. 하지만 후반전 골망을 먼저 가른 쪽은 경희고였다. 후반 시작 4분 만에 경희고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전골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팽팽한 경기를 벌이다가 창원기공 한승헌 선수의 강슛을 경희고 골키퍼 권재범 선수가 잡았다가 놓치는 실수를 하면서 골문으로 공이 들어가며 동점골이 만들어졌다. 한승헌 선수는 관중석을 향해 거수경례 세리머니를 하면서 기쁨을 표현했다. 권재범 선수는 자리에 누워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9분이 남은 경기, 다시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갔다. 하지만 36분, 경희고가 재역전골을 터뜨렸다. 남은 시간 창원기공은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2대 3으로 분패했다.

경기가 끝난 후, 창원기공 선수들은 3위 트로피와 메달을 받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무학기에 참가한 28개교 중 공동 3위, 경남권 학교 중 1위를 기록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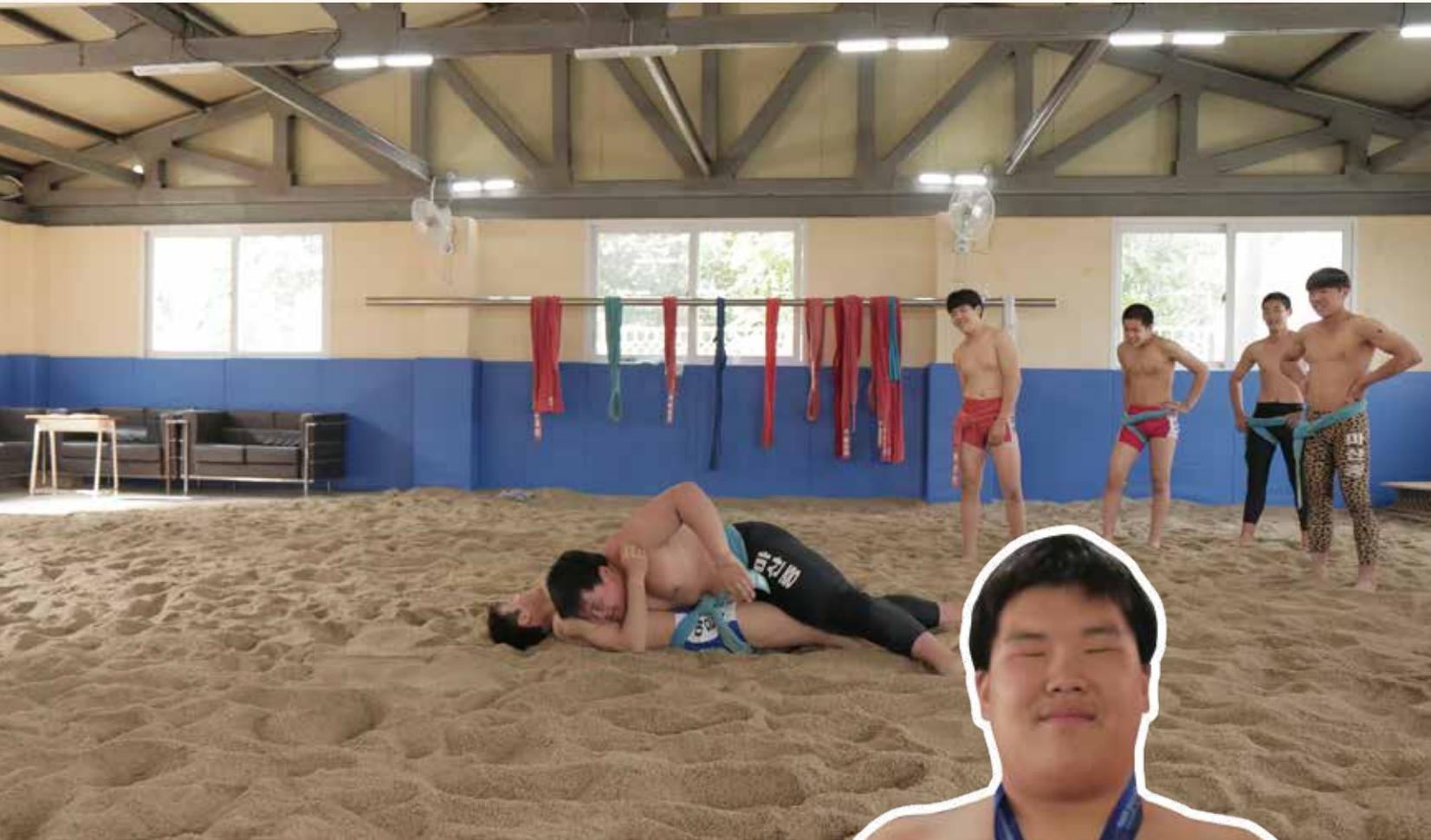
주장 구정모 선수는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이 고맙다. 8월에 열리는 다른 대회 역시 잘 해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경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하고 간 자리였다. 하지만 정말 축구 선수를 꿈꾸고 한 경기 한 경기에 미래가 달려 있는 큰 대회였던 만큼 투혼을 발휘해 뛰는 선수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앞으로 걸어온 축구 인생보다 앞으로 걸어갈 축구 인생이 더 길 청소년 선수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글=박솔미(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 / 사진=경남축구협회 제공



## “미래의 천하장사 나야 나” 전국소년체전 씨름왕 이창범 선수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춤에 맨 살바를 붙들고 힘과 기술을 겨루는 운동.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인 씨름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둥글게 모래를 깔아 어디서든지 씨름을 즐겼다. 씨름판에는 장사꾼이 모여들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 오늘날에는 시설과 경기 방식이 세분화되면서 스포츠 경기로 발전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다른 선수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씨름을



시작하였지만 6개월 만에 도 단위 대회까지 제패하고, 2019 전국 소년체전 중학부 장사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있다. 바로 마산중학교 이창범 선수다. 133kg의 거구와 상반되는 귀여운 반달 눈웃음을 가진 소년을 만나보았다.

### “맛있는 거 사준대서 따라갔다가 시작했어요”

이창범 선수는 대회에서 1등을 할 때면 SNS에서 유행하는, 요즘 말로 ‘인싸춤’을 추며 세리머니를 한다.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망치 춤’을 쳤는데, 방송에 나오는 대회만 수상을 못 해서 텔레비전에 못 나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시합장에서 ‘빨’대로 나오는 거라 지금 보여줄 수는 없다며 여느 또래들과 다르지 않게 장난기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창범 선수가 말하는 씨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컸던 이창범을 산청초등학교 씨름 감독이 알아본 것이다. 다른 선수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부터 씨름을 시작한다. 이창범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지만 여러 생활체육대회에서 1등을 휩쓸었다. 그리고 강호동, 이만기 선수들이 거쳐 간 씨름의 명문, 마산중학교로 스카우트됐다.

### “부모님께 보답하려면 이 악물고 한번 해보자”

산청에서 마산, 14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 마산중학교로 온 이창범 선수는 학교 앞에서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하숙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항상 멀리 있지만, 통화도 자주 하고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저한테 과분하게 주세요”라며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또 이번 소년체전에서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악물고 운동하였다며 속 깊은 모습을 보였다.

소년체전을 준비할 때 이창범 선수의 하루일과는 새벽 6시 운동장 20바퀴를 뛰고 토끼 똥, 고무줄 당기기 등의 아침 운동,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등산, 오후 3시부터는 본격적인 씨름 훈련,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감독

님이 지시하는 추가 훈련. 이렇게 하루에 네 차례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그리고 대망의 2019 전국 소년체전에서 이창범 선수는 중학부 장사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활체육대회에서만 뛰던 선수가 전국에서 쟁쟁한 씨름꾼들이 모이는 엘리트 대회인 소년체전에서 우승할지 누가 알았을까.

### 운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만 따낸 값진 금메달

이창범 선수는 씨름을 하며 가장 기뻐던 순간으로 이번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꼽았다. 운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만 얻어낸 금메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진 운이 별로 좋지 않아서 32강부터 시작해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모두 만났어요. 8강부터는 전부 첫판을 지고 역전승을 했는데, 결승 첫판에서 질 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라며 비하인드 스토리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창범 선수는 관절이 남아날 때까지 부상 없이 경기에 뛰고 싶다고 씨름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꿈과 열정이 있는 미래의 천하장사, 이창범 선수를 기대한다.

글·사진=이보민(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



#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 1 궁도
- 2 검도
- 3 농구

- 4 레슬링
- 5 배구







1



2



3



4



5



6



- 1 바둑
- 2 보디빌딩
- 3 복싱
- 4 야구
- 5 육상
- 6 볼링
- 7 배드민턴





- 1 산악
- 2 씨름
- 3 사격
- 4 역도
- 5 테니스
- 6 우슈



- 1 태권도
- 2 정구
- 3 유도
- 4 족구
- 5 축구
- 6 탁구



2



3



4



5



6

#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



5

- 1 그라운드 골프
- 2 배드민턴
- 3 국학기공
- 4 보디빌딩
- 5 육상
- 6 족구
- 7 에어로빅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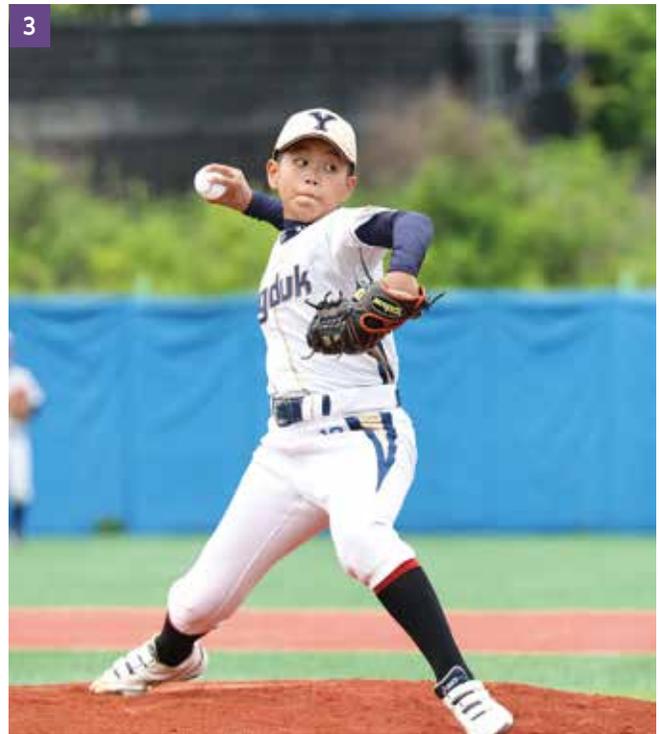
3



4

- 1 당구
- 2 축구
- 3 합기도
- 4 택견

##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

- 1 농구
- 2 배구
- 3 야구
- 4 롤러
- 5 검도



5



1



2

- 1 역도
- 2 유도
- 3 육상(계주)
- 4 육상(원반던지기)
- 5 육상(세단뛰기)



3





- 1 조정
- 2 체조
- 3 체조
- 4 펜싱
- 5 펜싱
- 6 하키



# 여름철 폭염 대처요령

출처 : 경상남도, 질병관리본부



## 폭염, 왜 주의해야 할까요?

폭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2011~2018년) 1,621명의 온열질환자와 16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가축과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1~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지수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 외출 시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가정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 더위 질병 상식

종류	증상	대처요령
땀띠(한진)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 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겹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겹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 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해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 무더위에 따른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주의

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국내외 여행 등 여가 및 단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과 식품으로 인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6대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3. 물은 꼭 끓여 마십니다.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활체육  
친구 '달리'예요~!



##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달리와 함께 달려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스포츠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해 집니다.